

# 우리가 아는 KAIST의 '얼굴', KAIST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상징

한 기관을 대표하는 상징물에는 그 기관만의 특별한 성격을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의미가 들어있기 마련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학 연구로 인간과 사회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KAIST는 상징물에도 남다른 의미를 듬뿍 담았다. 개성 넘치는 혁신가들이 직접 만든 KAIST 상징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창의와 도전이라는 거대한 정신의 만남, KAIST UI

KAIST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UI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약자인 KAIST를 전면에 활용한 워드마크다. 글자체는 1993년 산업디자인학과 정경원 교수가 처음 고안했고 그 이후 2014년에 현대적인 감각과 조형미가 잘 드러나도록 다듬었다. KAIST 하면 떠오르는 타원 형태의 그래픽 모티프는 창의와 도전이라는 두 거대한 정신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는 로고 오른쪽에 있는 '넙죽이'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형상화했다. 처음에는 '카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넙죽한 생김새에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볼매'로 많은 학생의 사랑을 받아 애칭이 공식이 된 경우다. 로고 왼쪽에 있는 새는 교내 오리연못에 있는 명물인 거위다. 2000년경 이광형 총장이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시절 유성시장에서 오리와 거위들을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학교의 마스코트로 자리잡았다.

## 보랏빛 긍지, KAIST 교기

넙죽이가 들고 있는 KAIST 교기는 보랏빛 바탕에 KAIST의 엠블럼이 새겨 놓았다. 이 오묘한 보라색은 초대 원장인 이상수 박사가 직접 선정했다고 한다. 이 박사는 이 보랏빛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 중에서 양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색으로서 부단한 '전진'과 혁신적인 '창조' 그리고 긍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교기 뒤에 있는 탑은 개교 20주년인 1991년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세운 조형물이다. 인류의 빛이 되는 과학기술을 상징하기 위해 빨강·초록·파랑의 빛의 삼원색을 사용했다. '석학들의 숲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뜻의 '석림(碩林)의 종'이 공식 명칭이지만 '까리용'이라는 별칭으로 더 친숙하다.

## 과학도는 조국과 인류의 햇불, KAIST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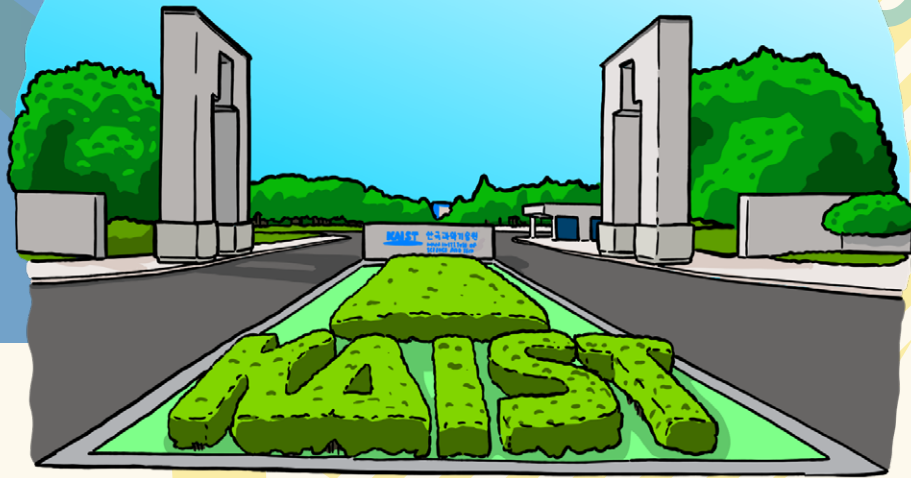
과학기술을 통한 인류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과학도들의 헌신을 예찬한 KAIST 교가는 초창기에는 청록파 시인인 박목월이 가사를 짓고 동요 <오빠 생각>이라는 대표작을 남긴 박태준 작곡가가 멜로디를 만들었었다. 이후 이 원가를 바탕으로 현재의 KAIST가 모습을 갖추게 된 1991년 천성순 원장 재임 당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가의 가사를 공모했다. 공모전에서 뽑힌 글을 도한호 시인이 다듬어 작사하고 침례신학대학교의 정두영 교수가 곡을 붙여 현재의 교가로 완성됐다. 과학도들의 창의력과 조국에의 헌신을 잘 표현해낸 자랑스러운 곡이다.

## KAIST 교가



## 과학과 기술이라는 두 기둥, KAIST 정문

KAIST 정문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화각성 타워가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마주보며 우뚝 서 있다. 타워 가운데에는 마치 한자 철(凸)과 같은 모양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 두 타워는 각각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조경학회지에 실린 2005년 논문 김대현 저 <대학 정문에 나타난 기호와 상징의 유형>에는 KAIST 정문은 사람의 머리를 맞대어 놓은 형상으로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 KAIST인이 지닌 불굴의 의지와 혁신, 조수미 교수와 'I'm A KA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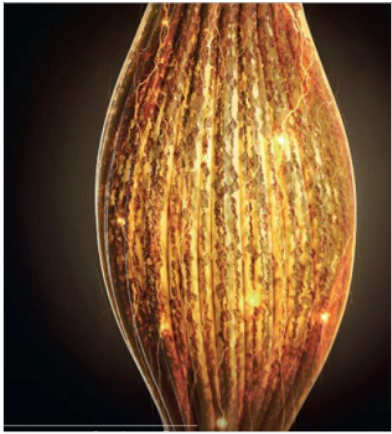
KAIST 조수미 교수의 임용과 조수미 교수가 부른 교가 'I'm A KAIST'는 그 자체로 KAIST의 파격과 혁신을 상징한다. KAIST는 2022년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문화기술대학원 초빙석학교수에 임명했다. 조 교수는 이를 기념하여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크리스(Chris W. Young)과 함께 KAIST의 교가를 새롭게 편곡하여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조 교수는 가사를 직접 손봤다. 과학기술을 통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가사에 예술적 감수성을 더해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 과학과 문화의 결합으로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의 전당이 되자는 마음을 담았다고. 이렇게 완성된 'I'm A KAIST'는 2022년 1월 6일, KAIST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 공연에서 조 교수가 직접 초연했다. 조 교수의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재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조수미 교수는 문화기술대학원 내에 설립되는 '조수미 공연예술 연구센터'에서 KAIST 교수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기술 및 사운드와의 통합 기술, 가상 연주자와 인간 연주자의 소통을 위한 인터랙션 기술, 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크 등의 융합 연구를 수행한다. 혈혈단신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 역경을 딛고 세계 최정상 소프라노로 등극한 조수미 교수의 임용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연구, 미래를 창조하는 KAIST인, 그리고 KAIST인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한다.

## KAISTian의 DNA, 도전·창의·배려,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은?

어느 학교에나, 어느 기업에나 분명하게 제시하는 인재상이 있다. 언뜻 보면 그저 좋은 말을 모아놓기만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인재상은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의 인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지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나아가서는 인재상이 곧 그 학교나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KAIST의 인재상에는 KAISTian이 누구인지, 누가 되고 싶은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KAIST는 '도전과 창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재상을 형성해 왔다. 연구와 산업의 최전선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견인할 인재들에게 꼭 맞는 가치다. 그러나 인간의 역량이 성장하고 사회가 성숙하면서 KAIST는 도전과 창의에 더해 '배려'를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았다. 나 혼자 잘하는 데 만족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KAIST는 다시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려 한다. 물론 배려 자체도 충분히 좋은 의미다. 그러나 배려에는 '배분'이라는 의미의 시혜적 어감이 있다. 그래서 KAIST와 KAISTian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제 역할을 한다는 취지를 담아낼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KAIST는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공헌, 소통, 봉사, 존중, 헌신 등 다양한 후보를 선별하고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AIST가 정립하는 새로운 인재상은 2023학년도 인재 선발 과정과 학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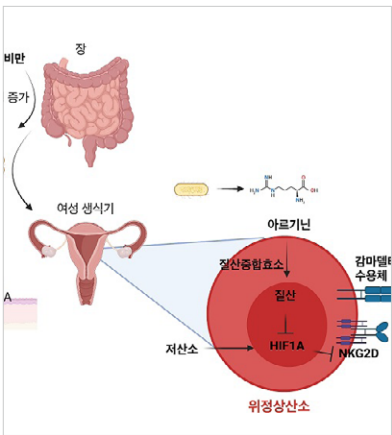




## + 인간 근육보다 17배 강한 헤라클래스 인공 근육 개발

KAIST 신소재공학과 김상욱 교수 연구팀이 부산대 안석균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그래핀-액정 복합섬유를 이용한 새로운 인공 근육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인공 근육은 현재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것 중에서 인간 근육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최대 17배 강한 힘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저명한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2021년 10월 27일)에 발표되어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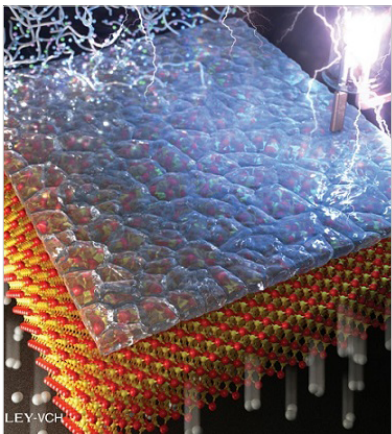
>> 더보기



## + 비만이 성병 헤르페스를 억제하는 메커니즘 규명

KAIST 연구진이 성병을 일으키는 2형 헤르페스 감염에 대해 비만인 암컷 생쥐가 더 높은 저항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쁘지만 할 것 같은 비만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관찰한 것이다. 비만은 종양 등 각종 질병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잘 알려졌으나, 연구팀은 여성 생식기를 통한 2형 헤르페스 감염 시 바이러스 저항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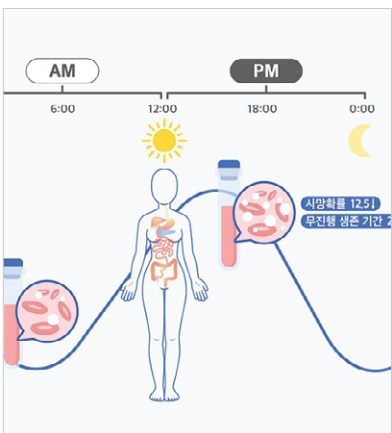
>> 더보기



## + 돼지표피에서 추출한 젤라틴 활용해 고성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개발

KAIST 기계공학과 이강택 교수 연구팀이 돼지 표피에서 추출한 젤라틴을 활용해 수백 나노 수준의 매우 얇은 고 치밀성 다중도핑 세라믹 박막 제조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의 양방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양방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R-SOFC)는 하나의 연료전지 소자에서 수소 생산과 전력생산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변환장치다.

>> 더보기



## + 여성 암 환자, 오후 항암치료가 효과 더 좋다

여성 암 환자의 경우 오전보다 오후에 받는 항암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연구팀은 고영일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광범위 B형 대세포 림프종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를 오후에 치료할 시 예후가 더 좋아진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반면, 남성은 하루 중 백혈구 수 및 골수세포 확산 속도 변화가 크지 않아 오전과 오후의 치료 효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 더보기



## + 해킹 동아리 GoN, 국내·외 각종 대회 석권

KAIST 정보보안 및 해킹 동아리 GoN이 국내·외 각종 대회를 석권했다. GoN은 11월 7일부터 이틀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2'에서 대학생부 1위를 차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코드게이트 2022'는 세계 최고의 화이트해커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적인 해킹방어대회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4번째 대회를 맞았다.

>> 더보기



## +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영균 교수, 대학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영균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최·주관한 '제2회 대학 원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11월 4일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대면 생물실험교육시 조교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되는 풍부한 정보와 조교-학생 간 밀접한 상호작용을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해 원격으로 구현함으로써, 원격 생물실험교육을 구현하였다. 해당 공모전은 202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 더보기



## + Team KAIST, 국제 해양로봇 경진대회 최종 결선 진출

KAIST 기계공학과와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이 국제 해양로봇 경진대회인 'MBZIRC 마리티타임 그랜드 챌린지'의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총상금 3백만 달러 규모의 이번 대회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후원하고 아부다비 과학성 산하기관인 ASPIRE가 주관한다. 역대 해양로봇 분야 경진대회 중 가장 큰 규모다. 출전팀은 실제 해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무인선과 무인기의 자율 협업 기술을 겨루게 된다.

>> 더보기



## + 최원호 교수 연구팀, 2022년 큐브위성 경연대회 기초위성분야 최종 선정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최원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2022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기초위성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항공우주공학과 윤효상 교수 연구팀도 함께 선정되어 KAIST는 복수의 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 선정팀은 큐브위성 개발비용과 발사 기회와 함께, 항우연으로부터 위성 설계 검토, 우주환경 시험 등 큐브위성 제작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지원받는다.

>> 더보기



## + 활짝 열린 우주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2 KAIST 우주기술 포럼 개최

KAIST가 12월 14일 '2022 KAIST 우주기술 포럼'을 개최했다. KAIST 기계공학과 중앙회의동 2층 해동정보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관의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집결했다. 포럼에서는 'KAIST 우주연구원'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우주 분야 전문가와 함께 KAIST 우주연구원의 비전과 청사진을 공유하고 한국에 우주산업이 뿌리내리는 데 우주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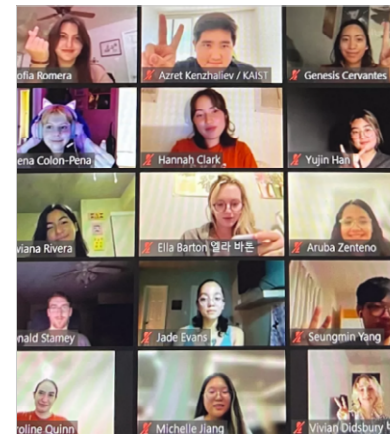
>> 더보기



## + 2022 대한민국 혁신창업상에 (주)토모큐브 등 6개 우수 혁신창업기업 선정

KAIST가 '2022 대한민국 혁신창업상'의 6개 수상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대한민국 혁신창업상은 혁신창업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KAIST와 서울대, 중앙홀딩스가 협력하여 제정됐다. 6개 선정 기업에 대한 수상식은 2022년 12월 20일 개최된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에서 거행됐다.

>> 더보기



## + KAIST-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협업 수업 진행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가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UT Austin)의 아시아학부와 2022년 가을학기에 협업수업을 진행했다. KAIST 김은경 교수와 UT Austin 앨리스 맥코이 배 교수는 각각 "세계언어와 문화특강 '영어사와 미국문화'" 과목과 "Third-Year Korean" 과목을 개설했다. 양교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온라인으로 만나 음식문화, 관계, 캠퍼스 생활 등 한국 및 미국 문화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결과물을 학기말 공동 과제로 발표했다.

>> 더보기



## + KAIST의 발명적 사고와 재미있는 상상력을 DDP에서

KAIST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협력전시인 '발명적 사고: 영감과 미래'를 통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과 이색 아이디어들을 대공개한다. 해당 전시는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흘간 무료로 진행됐다. 서울디자인재단과 KAIST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KAIST 산업디자인학과와 9개 연구실과 7명 학생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 더보기